

“많은 관광객들이 전주 방문 이끌어 내야”

전주시 지역 문화의 거리 조성 추진단 회의... 불거리 제공·관광상품 발굴 등 의견 제시

전주시 지역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모임이 지난 17일 아중리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은 지역내 다양한 사회계층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했다.

또한, 모임의 내용 주된 내용은 문화의 거리 조성을 통해 문화, 경제활성화 등 많은 의견들이 나왔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전주 방문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관광객들이 지역을 찾기 위해서는 불거리 제공, 거리경관조성, 시설, 자연 스킨 등 새로운 관광상품 발굴, 지역내 스킨공간부족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더불어, 가족 연인의 거리조성, 문화공간 힐링공간 등 특징을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임운상 변호사는 “서로의 협력으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기쁘다.”며, “지속적인 의견과 방향, 노력을 앞장 세우면 최고의 결과가 나올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재근 부안고속관광회장은 “변화와 새로운 경제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편안하고 아름다운 관광 문화가 펼쳐지길 기대하며, 지역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울러, 최은호 동부신협감사실장은 “우리 금융도 작은것에서부터 도움의 손길을 펼치겠다.”며, “누구나 편리하고 다시 찾고 싶은 문화 조성에



전주시 지역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모임이 지난 17일 아중리에서 열렸다

아낌없는 노력속에 지역민들과 함께 생각하며, 함께 견뎌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춘길 한옥호텔대표이사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생각은 누구나 공감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체성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문화를 통한 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

반이 다져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도내 호텔대표들과 법조인, 관광기업, 금융 회계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문화거리조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남원 보절면, 익명의 독지가 공기청정기 기증

남원시 보절면은 최근 익명의 독지가가 공기청정기 한대(120만원 상당)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기증된 청정기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독지가가 민원인들과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보낸 것이다.

최근 보절면 경로당에는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추진에 따라 3월부터 30개소 경로당에 2대씩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보절면 전체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경로당 장비보강사업으로 6월 말까지 경로당 20개소에 TV 1대씩, 경로당 24개소에 에어컨 1대씩 추가로 설치해 살기 좋은 보절면 민들기에 앞장설 예정이다. 허관 보절면장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공서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깨끗한 공기를 선물 받은 것 같아 매우 감사하며, 뜻을 소중히 여겨 더욱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병원 유희철 교수, 한국간담체외과학회 이사장 선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간담체외식학과의 유희철 교수가 한국간담체외과학회의 제16대와 제17대 이사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한국간담체외과학회는 지난달 초 서울 그랜드힐튼에서 열린 제50차 춘계국제학술대회(HBP Surgery Week 2019) 정기총회에서 새로 임원진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희철 교수가 제16대와 17대 이사장에, 한호성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제16대 회장에, 나양민 울산대학교병원 교수가 제17대 회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유희철 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까지 3월까지 2년이다. 한국간담체외과학회는 간담체 분야에 대한 교육, 연구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며 동 분야 학술활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6년 4월 정식학회로 출범한 후 2014년 세계간담체외과학회(IFPBA)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특히 2017년 정기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HBP Surgery Week)로 승격시켜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유희철 이사장은 “젊은 간담체외과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다국가 간 공동연구 발굴 및 기획 과제 육성” 등을 통해 학회를 조화롭게 성숙시켜 세계간담체외과를 선도하는 학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아시아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여 한국, 중국, 일본과의 연구를 지속하고 범아시아권 다국가 연구와 미주유럽과 국가들과도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희철 교수는 충청 호남권 최초로 간이식 100례 달성, 간종양 환자 등에게 로봇을 이용한 간절제술에 성공해 화제를 모으는 등 간담체외과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각 분야의 최고 베스트닥터를 소개하는 ‘EBS 1 명의 편’에 소개된 바 있다. 현재 전북지역암센터 소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이식학회 상임이사 및 교육위원회위원장, 대한외과학회 이사 및 교과관련위원회 등 활발한 학회 활동을 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남원시 산동면과 건설과, 포도농가 농촌 일손돕기

남원시 산동면 직원과 건설과 직원들은 (35명)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난 17일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산동면 식림마을 포도 과수원(2,075㎡)에서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일손돕기는 단기간에 집중적인 노동력의 투입이 필요한 원예특작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적기 영농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정읍시지부, 농번기 범농협 농촌일손돕기 실시

농협 정읍시지부(지부장 조천형)는 최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전북농협 지역본부(본부장 유재도), 정읍시지부, 농신보장읍센터(센터장 정수조) 및 황도현농협(조합장 김재기) 임직원 등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원면 소재 과수농가를 방문하여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농협 정읍시지부는 정읍시 범농협 임직원들과 함께 사과나무 꽃피기 및 과수원 정리작업 등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구슬땀을 흘리며 일손을 도왔다. /정읍=김대환 기자



임순남 지역자활센터 어울 한마당 성황리에 열려

임실지역자활센터가 주관한 ‘임순남 자활 어울 한마당’ 행사가 지난 17일 임실군민회관에서 임실·순창·남원지역 자활근로 종사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영우 부군수, 신대용 군의회위원장, 한완수 도의회부의장과 황인걸 한국지역자활센터 전북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시군 자활 참여기간의 활발한 교류와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임실=진충영 기자

백운면, 사과농가 일손돕기 ‘구슬땀’

진안군 백운면(면장 송준섭)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과 농가 돕기에 나섰다.

사과 농가들은 사과 꽃 따주는 일부터 시작해 한 달여 동안 사과 열매를 수확하는 일로 바쁜 하투를 보내고 있으나 모든 사과 농가가 동시에 하는 작업으로 일손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작은 손길 하나도 아쉬운 실정이다.

이에 백운면은 17일 환경과, 관광과 직원 30여 명과 함께 백운동마을 김학진씨, 오정마을 최영운씨 2농가를 찾아 사과농장 약6,000㎡의 사과 적과작업을 도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9년 11월 20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9596)92 전주 영신구 기린대로 22 4층 (서노출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용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945-4113	중앙지사 010-9988-6974	남원지사 692-3996	고창지사 563-999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8955	김제지사 547-8955	임실지사 010-9942-2725
서산지사 272-9417	순창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955	진안지사 433-3384
효지사 010-9945-9955	팔복지사 253-6944	남원지사 692-3996	정읍지사 538-3397
	군산지사 010-6789-039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659-9923	부안지사 010-2425-419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열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